

등·경유의 환경규제강화 및 탈황시설 확충 계획

- 통상산업부 -

1. 등·경유에 대한환경 규제강화

- 정부는 등·경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등유 및 경유에 대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특히 주요 환경오염물질인 황함유량에 대하여는 '96년 1월 1일 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경유는 황함유량을 현행 0.2% 이하에서 0.1% 이하로 규제를 강화키로 하였으며, '98년부터는 0.05% 이하로 더욱 강화하여,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품질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 등유의 경우는 현재 황함유량 허용기준(0.08%)이 유럽·미국보다는 낮으나,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향후 수년내에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 등·경유에 대한 황함유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정유사에서는 등·경유 탈황시설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저유황유의 국내생산이 증가되므로써 이에 대한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등·경유 탈황시설 확충계획

- '95년 12월말 현재 국내 정유사의 등·경유 탈황시설은 339천B/D를 보유하고 있으며, '97년까지 250천B/D 규모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년도별로는 '96년부터 경유에 대한 황함유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95년중에 97천B/D를 증설하였으며, '96년중에는 210천B/D가 증설될 계획이다.

년도별 등·경유 탈황시설 능력

(단위 : 천B/D)

	1994	1995	1996	1997
시설능력 (증설)	242 -	339 (97)	549 (210)	589 (40)

- 정유사별로는 유공등 4개사에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공과 쌍용정유는 금년도에도 각각 50천B/D 규모의 신규 등·경유 탈황시설을 완공하여 이미 가동중이다.

정유사별 등·경유 탈황시설 현황 및 증설계획

(단위 : 천B/D)

	유공	호유	한화	쌍용	현대	계
'95.12	117	50	38	115	19	339
증설계획	60	70	40	-	80	250
'97.12	177	120	78	115	99	589

3. 탈황시설 확충에 따른 저유황 등·경유의 수급전망

- 금년까지는 저유황 경유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내년 이후에는 정제시설의 확충과 등·경유 탈황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수입물량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저유황 등·경유의 수급전망

(단위 : 백만배럴, %)

	등 유			저유황 경유		
	1995	1996	1997	1995	1996	1997
내수	63.5	73.0	84.0	144.2	162.0	175.0
생산	43.0	55.0	70.0	117.0	148.0	170.0
수입	20.5	18.0	14.0	27.2	14.0	5.0
(수입의존율)	(32.3)	(24.7)	(16.7)	(18.9)	(8.6)	(2.9)

- 등유의 경우는 전체적인 수입물량은 감소할 것이나,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품목으로 내년 이후에도 동절기에는 일시적으로 상당량의 수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등·경유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계획중인 등·경유 탈황시설을 적기에 완공토록하고, 추가적인 탈황시설의 증설을 유도하여 저공해 등·경유의 생산,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

업계에선 지금

정유업계에 즉석복권 열풍

정유업계가 즉석복권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현대정유가 업계 처음으로 작년말 즉석복권을 수도권 고객에게 지급, 무선호출기 도자기 잔등 상품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유공이 즉석복권 경품행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유공은 최근 수도권 주유고객에게 가위 바위 보 즉석복권을 지급, 핸드크림, 소금세트, 기습기, 카세트테이프 등 다양한 상품을 주고 있다.

업계의 즉석복권 바람은 주유소 사은품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이다. 고객에게 같은 상품

을 지급하더라도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유시간동안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즉석복권의 장점으로 꼽힌다.

유공과 현대정유가 처음 실시한 즉석복권은 젊은계층과 여성운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는 올해 이벤트행사나 판촉전략의 하나로 즉석복권제공을 크게 늘려갈 전망이다.